



## 호젓한 여름 휴가지 2곳

글 / 김 초 록 (여행작가)



<병지방계곡>

### 때문지 않은 병지방계곡과 어담산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황성땅은 언제 찾아도 아름답다. 휴가철인 이즈음에 간다면 병지방 계곡이 딱 좋다. 주변에 둘러볼 만한 곳도 많고 무엇보다 청정계곡에서 폭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고속도로 황성 나들목을 빠져 나와 황성교를 건너 섬강 줄기를 끼고 달린다. 이 길은 그림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 섬강은 상수원으로 물놀이를 못하게 돼 있지만 더위는 식힐 수 있다. 황성교를 건너 황성댐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섬강 유원지가 보인다. 보를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시원한 곳이 더러 있다. 장마철만 피한다면 수심이 대체로 낮아 가족 단위의 피서객이 많이 찾는다. 수심이 낮다고 해서 먹을 감기보다는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하는 게 좋다.

섬강 줄기를 따라 병지방 계곡으로 간다. 10분쯤 달리면 황성댐과 병지방 계곡을 알리는 이정표가 보인다. 바쁘지 않다면 가까운 황성호에 들러보자. 원주시와 황성군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황성호는 단순히 댐만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다. 물 박물관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다양한 시설을 자랑하는 물 홍보관은 그 자체가 훌륭한 산 교육의 장소다. 흐르는 물을 순간 포착하여 물방울을 볼 수 있게 한 체험관이 특히 볼만하다. 주제관에는 물에 대한 역사와 현재의 쓰임새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아 물에 대한 상식을 쌓을 수 있다.

황성댐에서 병지방 계곡까지는 자동차로 15분 거리. 황성댐을 지나 4번 군도를 따라 추동리에 들어서면 병지방 계곡이다. 도로 포장 중이라 다소 어수선하지만 먼지 풀풀 날리는 신작로를 달리다보면 옛날 생각이 절로 난다. 비포장길을 따라 10분쯤 가면 때문지 않은 계곡이 펼쳐진다. 어담산을 끼고 굽이쳐 흐르는 병지방 계곡물은 오염원이 거의 없어 더없이 맑고 깨끗하다. 계곡 주위로 병풍처럼 둘러친 산세는 한없이 그윽해서 심신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다.

병지방 계곡에서 특히 아름다운 곳은 선녀탕 주위로 기암괴석과 들꽃, 옥같이 맑은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 놓고 있다. 병지방 계곡에는 2,000명 규모의 종합 캠핑장이 마련돼 있다. 6월말부터 8월까지 운영된다. 뽕뽕한

나무숲 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삼림욕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기다 보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 없다. 조약돌까지 비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물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계곡을 병풍처럼 두른 어담산(御踏山, 해발 789m)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까지 오르려면 인내와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어담산(御踏山)이란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 전설에서 기인한 것이다. 태기왕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겨 황성과 평창의 경계를 이룬 태기산을 거쳐 이곳 어담산으로 피해왔는데, '왕이 밟은 산'이라 하여 '어담산'이라 했다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면 강원 영서 지방의 높고 낮은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하산은 산 뒤골(병지방)로 내려오는 코스와 비독재에서 동막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으나 선바위를 지나 온천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가장 좋다. 산행은 보통 황성온천 입구에서 시작한다. 황성담 앞 이정표에서 좌측 대관대교를 지나면 삼거리저수지가 나오고 조금 더 직진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중탄산온천인 황성온천이 나온다. 유리탄산 성분이 강해 매끄러운 느낌을 주는 온천수다. 황토, 옥돌, 숯가마 찜질방에 노천탕까지 갖추어 놓았다. 개장 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문의: 033)344-4200-1. 온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마을을 가로질러 가면 계곡길과 만난다.

**등산코스:** 황성온천입구-삼거리-

침터능선-약물탕-정상-장송-선바위-온천(약2시간 40분, 5.8km).

**물놀이하기 좋은 가족 피서지, 운일암 반일암과 갈거계곡**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으로 더 알려진 전북 진안은 산, 호수, 계곡이 잘 어우러져 있다. 그 중에서도

한다. 운장산 동북쪽에 걸쳐 있는 명덕봉(845.5m)과 명도봉(863m) 사이의 약 5km에 이르는 주자천 계곡이 바로 운일암 반일암이다. 계곡을 따라 크고 작은 기암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길손을 맞는다. 기암 밑으로는 소(갭)처럼 깊은 물이 팔팔 팔 흘러내리는데, 발을 담그면 오싹할 정도로 차갑다. 암벽 여기저기서 있는 푸른 소나무는 별난 바위와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보여준다. 계곡 중간의 높다란 바위



<상천강물길>



<갈거계곡>

기묘한 바위들이 늘어선 운일암 반일암과 그 옆의 갈거계곡(운장산)은 무진장 더운 기운을 몰아내기엔 적당한 장소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고 장수 나들목으로 나오면 진안 쪽으로 가는 길이 흰히 열린다. 진안읍에서 다시 정천을 거쳐 20분쯤 달리면 주천면 소재지. 운일암 반일암은 여기서 운장산 쪽으로 2km쯤 더 올라가야

**여행 족지**

(지역번호 033)=중양고속도로 황성 나들목→황성 방향→황성교에서 좌회전(탑골유원지)→황성담 방향→병지방계곡(어담산). 황성나들목→황성담입구(1야전 지방도)→병지방 입구→삼거리저수지→황성온천(어담산). 시내버스(62-4번): 무주→황성→갑천면 병지방(1일 5회 운행, 1시간 30분 소요). 황성군 갑천면 포동리에 있는 황성자연휴양림은 황토 흙집, 통나무집 등을 갖춘 시설 휴양림이다. 사전예약 필요. 문의: (033)344-3391-2. 병지방계곡 내 마을에 민박집이 더러 있다. 민박 문의: 황성군청 관광정책과(340-2544), 갑천면사무소(340-2606).

위에는 사방 경치가 두루 바라보는 정자(도덕정)가 우뚝 서 있다. 정자 바로 밑으로는 2차선 도로가 뚫려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만이다. 다만 한여름이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차들로 인해 조금 복잡한 것이 흠이다. 골이 하도 깊어 구름에 가린 해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운일암(雲日巖)이라 했다. 또 해를 반나절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서 반일암(半日巖)이라 했으니 그 이름만으로도 계곡의 깊이와 시원함을 헤아려볼 수 있겠다. '무이구곡'이라 불리는 이 두 절경은 열두굴, 천렵바위, 대불바위, 형제바위, 아랫굴, 용소, 복룡암 등 눈을 사로잡는 볼거리도 많다. 모나지 않은

길이는 약 7km. 갈거 마을에서 시작한 깊은 골짜기는 오염원이 없어 물이 맑다. 갈거계곡을 따라 마당바위, 정밀폭포, 옥녀봉폭포, 장독바위, 학의소, 물통바위 등 명소가 많다. 운장산은 금강과 만경강의 분수령이다. 산을 떠받친 세 봉우리는 한걸 차고 위엄이 서려 있다. 동봉과 서봉 사이에 솟은 상봉(上峰)이 가장 높다. 산죽과 억새풀 우거진 등성을 한바퀴 돌아 내려오는데 어른 걸음으로 3시간~4시간쯤 걸린다. 운장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9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12실, 숲속수련장, 야영장, 데크 등이 마련돼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huyang.go.kr)

에서 예약을 받는다. 문의 063-432-1193. 갈거계곡에서 20분 거리에는 풍광 좋은 용담호가 펼쳐져 있다. 호수는 그야말로 장대하다. 호수 옆으로 난 호반도로는 무려 60km가 넘는다. 진안읍 운산리 삼거리에서 출발해 795번 지방도를 따라 정천면 소재지를 거쳐 용담댐~13번 국도~안천면 소재지~30번 국도~불노티터널~월포대교로 돌아오게 된다.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호수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즐기는 아침 드라이브는 기운을 샘솟게 한다. 호수에 깔린 물안개라도 만나면 즐거움은 배가된다.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와 산줄기가 가슴에 안긴다. 용담호 남동쪽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강변에 자리잡은 천반산휴양림은 색다른 잠자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곳이다. 휴양림이라기보다는 강변 휴식처에 가깝다. 검은빛이 도는 황토찜질방과 황토방을 갖추었다. 강변의 방갈로 시설이 매력적이다. 캠핑파 이어도 가능해 대학생 MT장소로 인기가 높다. 문의 063-432-7366.



집채만한 바위들이 줄지어 있는 운일교와 반일교 부근이 특히 볼만하다. 비뚤덩이 사이로 흐르는 물은 곳곳에 소(沼)를 만들어놓아 발을 담그기에 적당하고, 하류로 조금만 내려가면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운일암 반일암에서 남쪽 725번 국도를 따라 약 20분 달리면 운장산 자연휴양림이 나온다. 휴양림 안쪽으로 갈거계곡이 펼쳐져 있다. 계곡의

이지(www.huyang.go.kr)에서 예약을 받는다. 문의 063-432-1193. 갈거계곡에서 20분 거리에는 풍광 좋은 용담호가 펼쳐져 있다. 호수는 그야말로 장대하다. 호수 옆으로 난 호반도로는 무려 60km가 넘는다. 진안읍 운산리 삼거리에서 출발해 795번 지방도를 따라 정천면 소재지를 거쳐 용담댐~13번 국도~안천면 소재지~30번 국도~불노티터널~월포대교로 돌아오게 된다.

### 여행 족지

(지역번호 063)=진안읍→795번지방도→10km→정천면→725번지방도→12km→주천면(좌회전)→732번지방도→3km→운일암 반일암, 대전-김주고속도로-무주나들목→0번 국도-용담호-진안시외버스터미널(433-2508). 운일암 반일암 계곡에 전주여관(432-7026), 알프스산장(432-7024), 무릉원(432-5444), 에로스산장(432-7025) 등과 운장산쪽에 운장산산장(432-5458), 용담호쪽에 갈보리펜션(432-5998) 등이 있다. 용담호 주변에 봉어?소가리?매기 등으로 폭 끓여볼때 문탕집들이 더러 있다. 불로치고개?의 용소나루터(432-9973), 월포리의 토지가든(432-5566, 민박가능) 등.